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6. 15. / (총 1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민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서울시 질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정 진 숙		02-2133-7660 02-2133-7669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혜 경 김 혜 정		032-440-7850 032-440-78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중 형		044-205-6511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히며, 방역 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수도권 거주 국민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1. 지난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 지난 2주간(5월 31일~6월 13일)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5월 29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기준, 5월 31일(일)~6월 13일(토)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6.5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7일~5월 30일)의 20.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이를 1주 단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기준,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0.1명(5월 17일~5월 23일), 30.6명(5월 24일~5월 30일), 32.7명(5월 31일~6월 6일), 40.3명(6월 7일~6월 13일)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5월 17일(일)~6월 13일(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

	전체(지역사회+해외 유입)		지역사회 감염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합계	1일 평균	합계	1일 평균	합계	1일 평균
5. 17.~5. 30.	404	28.9	317	22.6	285	20.4
5. 17.~5. 23.	128	18.3	84	12.0	71	10.1
5. 24.~5. 30.	276	39.4	233	33.3	214	30.6
5. 31.~6. 13.	610	43.6	527	37.6	511	36.5
5. 31.~6. 6.	278	39.7	237	33.9	229	32.7
6. 7.~6. 13.	332	47.4	290	41.4	282	40.3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6월 8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사회 감염 위양성 1명 제외

○ 이에 정부는 5월 29일(금)부터 6월 14일(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외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어학원과 대형학원 1,100여 개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중소학원 700개소도 점검 중이다.
 -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하여 기숙사 학생, 교직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반시민 중에서도 매주 1,000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소규모 종교시설(교회) 신도 779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완료(~6월 14일)하였고,
 - 8개 고위험시설*과 학원·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점검 중이다.
 -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관내 물류창고업, 콜센터, 장례식장 등 1,6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였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종교시설과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 관계부처 대응 현황

- ☐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취업 준비와 생업 등을 위해 매년 340만 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월 15일 현재 143만여 명이 응시하였다.
 - * 당초 3월 22일 시행예정이었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통합 필기시험을 한 차례 연기(4월 25일) 후, 1·2차 시험을 통합, 5일간 분산 실시 중 (6월 6일, 7일, 13일, 14일, 21일)
 - 6월 6일과 7일 이틀간 17만 7000여 명,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10만 3000여 명이 응시하여, 특히 동향 없이 정상 실시되었고, 21일(4만 2000여 명 응시 예상)에도 정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방역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밀집·취약 사업장과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콜센터, IT, 육가공업, 전자제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취약 사업장에 4,123개소를 자율 또는 불시점검하여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다.

-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27개 일선기관), 민간재해기관(400개소), 안전지킴이(200명)를 통하여 **13,149개소**(건설 5,454개소, 제조 8,811개소)를 점검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업장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항만 물류시설 등 1,288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

-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은 양호하였으나, 자체 방역지침 수립, 방역 교육, 거리 두기 등이 미흡한 43건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 항만물류시설의 경우에는 근무자 휴식조치, 장비 소독, 방역 교육 등은 양호하였으나, 비상연락망 구축, 식당 아크릴 칸막이 설치, 외부인 출입관리 등이 미흡한 1,390건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 또한 마리나 다중이용시설(대여업체 121개, 보관·계류 업체 30개)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를 진행 중이다.

- 6월 12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3건을 탐지하여, 953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056건을 탐지하여 811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개인정보 및 동선정보 탐지·삭제 건수 >

구분(누계)	탐지	삭제	요청 중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 1.~6. 12.)	973	953	20
동선정보 노출 게시물(5. 4.~6. 12.)	1,056	811	245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6월 14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 (42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516건(830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272건(336명)을 기소(구속 6명)하였고 244건(492명)은 수사 중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현황 (6월 15일 기준) >

구 분	수사 중		사건 송치			구속	
	착수	누계	일계	기소	불기소	일계	누계
격리조치 위반 등	4건(4명)	385건(415명)	-	231건(248명)	-	-	6명
방역조치 위반	-	3건(13명)	-	2건(10명)	2명	-	-
거짓자료 제출 등		16건(25명)	-	4건(6명)	-	-	-
집회금지 위반 등	1건(1명)	27건(107명)	-	7건(19명)	-	-	-
집합금지 위반	5건(37명)	84건(269명)	1건(1명) 기소송치	28건(53명)	-	-	-
입원 거부	-	1건(1명)	-	-	-	-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0,348명과 의심 환자 37,019명 등 총 48,922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환자 등 이송현황 (6월 15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 계	확진환자	의심환자	병원전원	검체수송(건)
누 계	48,922	10,348	37,019	752	803

- 아울러 전국 학교 내 학생 유증상(의심)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20일부터 총 4,079명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하였다.

< 학생 유증상자 이송현황 (6월 15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1차 이송(선별진료소)		2차 이송 장소			
	인원	보호자인계	계	병원	학교	자택 등
누 계	4,079	1,662	2,417	100	473	1,844

- 더불어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25건을 포함하여 총 2,755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 입국자 이송현황 (6월 15일 0시 기준) >

구 분	총 계		임시대기시설*		확진자 병원이송		대기해제	
누 계	2,755건	23,261명	1,365건	12,181명	325건	342명	1,065건	10,738명

* 공항입구 → 검역소 → 임시대기시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4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4,978개소, ▲노래연습장 1,239개소 등 총 15,16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미적용,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8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특히 인천시에서는 군·구·교육청에서 합동하여 학원 방역 이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라남도에서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설치 방법과 사용요령에 대한 방문 지원을 진행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85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91개반, 53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7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06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적용,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6,6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6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951명이다.
 - 3,146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88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4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4일)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3명이며, 이 중 11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3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14일) 입소 224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9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